

데스크시각

김주정



몇 년간 한국정치사는 한나라당의 내부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책대결이든 권력투쟁이든 한나라당 관

보 얘기가 나올 때마다, 호남은 자신들 것인 양 행동하는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물갈이 해야 民心도 움직여

제1야당인 민주당의 '아사리'들은 그 수가 많지도 다양하지도 않다. 중도의 손학규 대표는 그저 짐승고, 장동영 최고위원은 어느 날 갑자기 좌파가 됐다. 정세균·전정배·박주선 최고위원 등은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민주당에 안방을 제공 중인 광주·전남 사람들로서 걱정이 수박에 없다. 광주·전남이 추석 전에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기류가 감지됐다. 내년 총선에서 '새 인물'을 찍겠다'라는 지역민들이 45.9%로, '현역의원을 찍겠다.'라는 사람들(34.4%)보다 훨씬 많았다.

'솔만한 아사리'는 오히려 재야에 있다. 안 교수, 박원순 변호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언론의 조명이 집중될 때까

길어가는 것은 아니다. 야권통합을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백과사전의 황제 '브리태니커'가 누구나 편집에 참여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밀리고 있음을 눈여겨보자.

그러할 조선 초에 아사리가 무법의 대명사로 왜곡된 것은 불교는 억누르고 유교를 장려하는 정권논리가 크게 작용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타락에서 비롯했다는 분석이 있다.

(여론매체부장) jnews@kwangju.co.kr

'아사리판'의 정치

(阿蘭梨)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요즘 민주당은 어떤가. 무상급식 주민 투표 승리 여세를 몰아 보편적 복지 공세를 계속했다면 전국 주도권을 총선·대선까지 이어갈 수 있었는데, 서울시장 후보 경탈전에 너도나도 나서면서 '인물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대신 '골목대장'이라는 작은 권력에 취해 있다는 인상이 짙다. 특히 호남출신 국회의원 상당수는 야권 연대를 위한 양

로 세력이 급격히 팽창했다. 그러다 보니 법도가 서로 달라 갈등을 빚고, 승려로서의 품위도 문란해졌다. 결국, 세존은 계을에 밝고 지혜와 복덕을 겸비한 '아사리(a-ca-rya · 사별)' 다섯을 뽑아 출가와 수계, 견경, 참선을 하나씩 맡아 이끌게 했다. 덕

분에 험클어졌던 조직이 안정되고 서로 보살피고 공부하는 기풍이 자리를 잡았다.

안철수 쓰나미에 휘청거리고 있던 하지만, 한나라당 또한 나름의 다양성과 치열함으로 한국정치를 이끌었다.

안철수 쓰나미에 휘청거리고 있던 하지만, 한나라당 또한 나름의 다양성과 치열함으로 한국정치를 이끌었다. 무상급식을 놓고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평소에도 박근혜 전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정두언 의원은 청와대와 각을 세우면서까지 주도권을 다툰다.

안철수 돌풍에 난장판

난장판을 떠올리게 하는 '아사리판'은 본래 정반대의 뜻으로 쓰였다. 이야기는 석가모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섭과 그 삼행제가 유력인사 250명을 데리고 석가모니에 귀의했다. 승단은 이를 계기

은편칼럼



옥영석

2010 농림어업총조사에 비친 농촌

명으로 줄어 전체인구의 7% 수준이다. 특히 농가인구는 306만 명으로 전체 인구비중의 6.4%에 불과하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도시이주와 업종 전환이 주요인이라는 건 초등학교도 아는 얘기지만 고령화의 속도를 보면 더욱 심각하다.

UN에서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14% 일때 고령화사회, 20% 미만은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화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이제는 농가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청장년층 인구유입은 없고 기존인구만 늘어간다는 의미다. 농림어가 경영주 평균연령이 2005년 60.6세에서 2010년 62.0세로 1.4세나 증

가한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인구를 연령 크기순으로 일렬로 세워 단순히 균등하게 2등분한 것을 중위연령이라 한다. 그런데 농림어가 인구의 중위연령은 55.5세로 전체인구(38.1세)보다 17.4세나 높게 나타났다.

회갑이 가까운 나이에 제 농사 짓기에도 힘겨운데 읍면사무소에 나가 마을 일보고 이런저런 회의에다 각종 민원으로 뛰어다니기엔 버거운 연령이다.

도농교류 및 정보화부문을 보면 전국 3만 6498개의 행정처 가운데 홈페이지를 운영 하는 곳은 2613개로 전체의 7.2%에 불과하다. 그나마 주요용도는 마을안내(51.7%)

기고



도산

왜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인가?

요즘 이명박 정부를 지켜보면 참으로 아리리하다. 초·중등 학생들에게 주는 무상급식의 불가(不可)를 놓고 서울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했다가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창피만을 당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비록 33.3%에 미달해서 개합은 못했지만 민주당의 비합당한 투표거부, 방해로 인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민투표는 그레도 오세훈 시장의 승리다"라고 구차스런 변명까지 하였다.

이를 두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SNS를 통해 야유를 퍼붓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시골 의사 박경철은 "그런 논리는 파리를 새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일축했다.

국가가 누런(栗亂)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전라도의 의로운 정신은 더욱 빛을 발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축창을 손에 들고 서라도 전쟁터로 나아갔다. 고경명, 김덕령

으로 대표되는 의병장들은 국민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려는 충절로 전국 산야를 피로 물들였다. 특히 1908년 전라도 의병들은 왜 군과의 교전횟수와 의병들의 참전수에서 전국대비 25%를 차지했으며 1909년에는 무려 60%가 전라도 의병들의 몫이었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한말 호남의병은 1895년경부터 1915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약 20년간을 투쟁했는데 이 무렵 호남에서는 기삼연, 기우만, 고광순 등이 참전하였고, 여수 흥국사의 기업대사, 석전사의 옥형선사 같은 이들은 이순신 장군의 결에서 승병들의 동원과 해전 당일의 천기(天氣)를 자문했다.

이들의 승군이 주둔하였고 나아가 싸우는 군사들의 대부분이 전라도 지역 의병이나 어부 출신이었으며 그들이 먹어야 할 군량미 역시 모두 호남의 들관에서 거두어들이던 양식이었다고 기록돼 있다.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라는 이 말은 충무공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가히 1592년 일본의 대륙침략야욕으로 시작된 7년간의 임진왜란은 우리와 일본 간의 원한을 남기기에 충분할 정도의 피의 전쟁이었다.

1910년 치욕의 한일합병, 1919년 3·1만세운동, 거기에도 관동대지진 또 조선인 학살사건, 마산, 광주학생의거 등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우리 민족이 일제(日帝)로부터 받은 굴욕과 압박은 이루 다 말할 헤아릴 수 없는 부끄러운 암흑의 역사이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뼈아픈 체험들이었다. 두 번 다시 우리는 그런 굴욕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너무 비싼 참고서, 불합리한 가격구조 바꿔야

학원비에 휘청거리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과 과정을 공부해야 하는 부담 못지않게 큰 고민이 하나 더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참고서와 문제집 가격이 너무 비싸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2학년 때 산 참고서와 문제집이 모두 11원이나 된다. 그런데도 몇 원은 더 구입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공부하겠다는 아이에게 좋고 비싼 학원은 보내주지 못할망정 돈 없다고 문제

집조차 안 사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제집과 참고서가 학생들에게는 필수다. 그 액수를 다 따져보니 1년에 최소 50~60만 원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참고서의 질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가격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참고서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쌀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편의점 같은 곳에서 학생들의 문제집과 참고서를 팔 수 있다. 그

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중간 유통과정을 거쳐서 되어 있어서 서점이 아니면 참고서 구입이 불가능하다. 결국, 몇 단계를 거치는 유통구조상 비싸지는 책값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

▲민경화·광주시 광산구 상정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정치권, 추석 민심 제대로 새겨라

광주·전남 출신 정치인들이 고향에 내려와 확인한 '추석 민심'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가 주류를 이뤘다. 일자리 없고 하루가 무섭게 오르는 물가와 날로 늘어가는 빚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은 기쁨보다 앞선 것이다.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1~2년 새 지역경제의 벼랑목이었던 건설업이 초토화되다시피 했고, 조선업 역시 내리막 길이다. 그에 버금가는 대기업이 새로 입주한 예도 없다. 이로 인해 가족이나 부족한 일자리는 더욱 줄어

서민들의 삶은 더욱 지난하다. 우선 일자리가 없다. 20~30대 취업률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도의 고용률은 50~60%로 타 시·도와 비교해 최하위권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무려 40만 명에 이른다. 채소·과일류 등 천정부지의 물가와

불어만 가는 가게 빛은 서민들에게 두려움 그 자체다. 소비자들이 상승률은 이미 5%를 넘어섰다.

성난 농심도 들끓고 있다. 쌀이 남아돌다 보니 가격은 최악의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가를 잡는다며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달 초 태풍 '뮤이파'에다 이상 기후로 과수와 채소 농사를 망치고, 양식장이 썩대밭으로 변

한데도 정부는 물가를 잡는다며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달 초 태풍 '뮤이파'에다 이상 기후로 과수와 채소 농사를 망치고, 양식장이 썩대밭으로 변한 안도 등 전남 서남해안 양식어민들은 자칫 길거리에 나왔어야 할 형편이다.

이제, 정치인들이 추석 민심을 제대로 살피려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서민들에게 혜택이 축대밭 수 있는 민생대책을 세우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체감경기와 고용효과가 큰 건설업을 살리고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

인사와 예산의 상대적 소외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민심을 외면하고 성공한 정치나 정부는 없다.

'반값' 근처도 못 간 등록금 대책 실망스럽다

정부·여당이 지난 8일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득이 낮을수록 장학금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내용의 대학 등록금 대책을 내놔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일수록 덜 내는 것으로, 소득 하위 70% 가정 약 100만 명의 대학생 등록금이 평균 22% 준다. 기초수급자는 등록금 총액의 약 75%가 줄지만,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5140만 원 이하인 7분위는 약 11% 정도 준다.

'반값 등록금' 공약 이후 5년 만에 나온 이 같은 방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전체적으로 '반값'은커녕 평균 5% 정도 인하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폭발적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을 의식해 마지막까지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4분위 이상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대학에 배분하는 7500억 원으로 대체하는 것도 문제다.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매칭 펀드식으로 지원해 대학이 등록금을 5% 정도 내리는 효과를 거두겠

다는 것이다. 이는 장학금으로 지급해 실제 부과하는 명목 등록금은 아무 차이지 않다.

물론 대학 등록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많은 혜택을 주는 차등지원도 수긍한다. 그렇지만, '반값 등록금'을 약속해 학부모, 학생들의 기대감만 잔뜩 부풀렸다 겨우 5% 인하여 그친 것은 체감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정은 국민이 좀더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생색내기나 면피성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불만만 쌓일 뿐이다.

등록금 인하에 대학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학이 등록금을 낮출 여지는 많다. 적립금만 선천적 원색 쌓아놓고 방안만 경영으로 등록금이 새나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대학들도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스스로 등록금을 낮추려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바야흐로 아트페어(Art Fair)의 시대다. 매년 3월 열리는 마스트리히트 아트페어, 6월 바젤 아트페어, 12월 마이애미비치 아트페어 그리고 가장 늦게 생겨나 매년 10월 런던에서 열리는 프리즈 아트페어 등 이른바 세계 4대 아트페어 외에도 해마다 전세계에서 수백 개씩의 아트페어가 개최되고 또 새로 생겨난다.

이렇게 아트페어가 범람하면서 미술계에는 '아트페어 피곤증'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경쟁의 세계를 파헤친 서적 '은밀한 갤러리'에 따르면 경매회사인 '필립스 드 튜리'의 원년 파트너 미하엘라 노이마이스터는 "이젠 새로 온 아트페어가 찰살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마다 마음속에서 고통이 밀려온다. 미술계가 무슨 짐지 서커스단처럼 바다수준으로 전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한탄했다.

아트페어는 화랑과 미술품 딜러들이 며칠간에 걸쳐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판매하는, 일종의 산업박람회다. 아트페어가 '최고의 작품을 최악의 방법으로 보여

주는 곳'이라는 약평을 듣는 이유다. 최대한 많은 작품을 한정된 공간에 전시해야 하는 특성상 실제 인테리어가 미술품 감상에 적합하지 않은데다, 사람들이 북적거려 작품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

이다. 분위기가 어눌하지 않는 작품이 같은 공간에 걸리기도 하고, 비슷한 성향의 작품이 연이어 전시되기도 한다. 또, 안전을 위해 조명도 지나치게 밝게 해두는 편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러 부정적인 시각과 평가에도 아트페어의 인기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다른 작품과 차별화를 통해 살아남으려는 작가들의 치열한 아이디어 경쟁 그리고 전시할 한구석에서 서명 작가의 빼어난

작품들 '문득' 발견하는 감동을 아트페어에서는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막을 내린 광주아트페어 역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아트페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멋진 축제였다. 광주아트페어의 진화와 건투를 기대한다.

/홍행기 정경부차장redplane@kwangju.co.kr

| 光 卍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 회장 金鐘宅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 논설주간 申港樂 | 편집국장 曹庚完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인간11 | |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 문화생활부 2200-661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홍보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여론매체부 2200-621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
| 경쟁부 2200-612 | 체육팀 2200-697 | 광고이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대표 FAX 222-4918> | 사진부 2200-693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사회부 2200-616 | 조선부 2200-571 | 디자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대표 FAX 222-4267> | 전산팀 2200-685 | 기획사업국 2200-555 |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